

“환난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리이다”
칠레 산불, 최소 122명 사망...고온·강풍·난개발로 피해 커져



중남미에서 최초로 대한민국 정부를 승인한 나라이자 한국 첫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상대국인 칠레가 최악의 산불 속에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칠레 재난 당국은 이번 산불로 크나큰 인명 피해가 발생한 원인에 대한 분석에 나섰다.

5일(현지시간) 칠레 국가재난예방대응청(세나프레드·Senafred)에서 제공하는 재난정보와 기상청, 소방 당국 소셜미디어 등을 종합하면 지난 2일 중부 발파라이소주(州)에서 발생한 산불로 지금까지 최소 122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날 저녁 112명보다

10명 늘어난 수치이고 향후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피해 관련 발표 일원화 방침으로 당국 공식 발표 외엔 피해 상황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여전히 생사 확인이 되지 않은 실종자 수는 100명 안팎으로 보고 있다고 현지 방송인 TVN칠레는 전했다. 세나프레드 등 당국은 이번 화재가 고온과 강풍 등의 영향으로 삽시간에 주변으로 번졌다고 보고 있다.

한때 시속 60km에 달했던 거센 바람도 불길을 키우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맹렬한 화마의 기세에 경보를 알리는 긴급 알람 수신용 안테나까지 일부 파손돼, 피해자들이 제때 대피하지 못했다는 정황도 나왔다. 강풍과 건조한 날씨로 불길이 삽시간에 번지면서 산불은 이제 해안에 있는 관광 휴양 도시 비냐델마르와 발파라이소를 위협하고 있다. 칠레 수도 산티아고 서쪽에 있는 이 두 도시의 외곽 지역 인구는 100만 명이 넘는다.

칠레 당국은 이들 최대 피해 지역에 통행금지령을 내리고 소방관들의 화재 진압을 지원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하는 한편 헬리콥터를 동원해 공중에서 물을 분사하고 있다. 마누엘 몬살베 칠레 내무부 차관은 이날 칠레 전역에서 165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비냐델마르와 킬푸에에서만 1만 4천 채의 주택이 피해를 봤다고 추산했다. 비냐델마르 외곽 산비탈 마을의 경우 비좁은 도로 조건과 저소득층 주거지가 몰려있는 곳이다.

군 장병과 자원봉사자들의 복구 작업도 계속되는 가운데 멕시코를 비롯한 중남미 이웃 나라들은 칠레 정부에 연대의 뜻과 함께 구호품 전달을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 당국은 또 방화 용의자 2명 이상을 체포해 혐의점을 조사하고 있다. 가브리엘 보리치 칠레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메시지에서 5일부터 이틀간의 국가 애도의 날을 선포하고 “칠레는 대규모 비극에 직면해 있다”면서 더 나쁜 소식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출처: 연합뉴스 종합).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시편 86:6-7)

하나님, 삽시간에 퍼진 산불로 인해 비극적인 상황에 놓인 칠레 국민의 마음에 용기와 힘을 주시고 더 이상 인명피해가 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앞에 대처할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크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위정자들과 국민이 되게 하옵소서. 재난 지역에 이웃 국가들의 섬김이 공급되게 하시고, 교회가 돕는 일에 기도로 동참하여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믿음에 이르는 칠레 영혼들 되게 하소서.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1]

▲ 예멘 후티 반군, 홍해서 미국과 영국 상선 공격

친이란 예멘 반군 후티가 홍해에서 미국 상선에 이어 영국 상선까지 공격했다고 1일 로이터 통신을 인용, 연합뉴스가 전했다. 후티는 1일 성명에서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주민을 지지하고 미국과 영국이 예멘을 공격하는 데 대응하기 위해 홍해 상 영국 상선을 표적으로 삼았다”며 “이스라엘이 전쟁을 중단하고 팔레스타인 주민 봉쇄를 해제할 때까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겨냥한 작전은 계속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같은 날 영국 해상무역기구도 예멘의 홍해 항구도시 호데이다 서쪽에 있는 한 선박 우현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폭발이 보고됐다고 밝혔다. 후티는 이번 공격을 포함해 지난 24시간 동안에만 홍해를 지나는 선박을 3차례 공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는 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를 지지한다는 명분으로 작년 11월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홍해를 지나는 상선을 공격해 왔다.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울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잠언 29:22,25)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 일어나는 상대에 대한 노함이 다툼이 되고, 성내는 마음이 평안을 줄 수 없음을 정직하게 인정하며 후티 반군과 함께 관련된 모든 국가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서로 간에 피 흘리는 보복을 멈추지 않고, 이로 인한 결과에 만족할 수 없는 나라들의 실상을 불쌍히 여기사 십자가의 죽음으로 화평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분쟁 나라들에 비추어 주소서. 속히 이 전쟁을 멈추어 주시고, 우리의 견고한 요새 되신 주님을 의지하여 생명과 평안을 얻는 안전한 길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 남수단, 목동들 폭력사태 발생...39명 사망

남수단에서 목동들 사이에 폭력 사태가 발생해 39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했다고 4일 뉴스1이 전했다. 두 목동 집단 간의 싸움은 지난달 31일 일어났는데, 건기를 맞아 물과 풀 등의 자원 부족 때문에 발생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남수단 북서부의 주인 워랩주의 윌리엄 월 마욘 불 공보부 장관은 이 충돌로 워랩 지역 목동 19명이 사망했고, 17명은 부상을 입었다고 전했다. 인근 레이크주 목동들은 20명이 사망했고 36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1명은 실종됐다. 경찰은 두 주의 목동들이 건기마다 자원을 두고 싸워왔다면 이런 충돌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불 장관은 1일 성명을 통해 “폭력 사태는 완화됐지만 습지 지역에서 여전히 사소한 충돌이 보고되고 있다”며 “두 이웃 주 사이의 평화로운 공존과 협력”을 촉구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골로새서 1:21-22)

하나님, 남수단에 부족한 자원으로 인해 매년 발행하고 있는 충돌소식은 조건 없이 사랑하고 내줄 수 없는 우리의 실상임을 인정하며 주님께 겸손한 마음을 구합니다. 피 흘리는 다툼을 그치게 하시고 남수단에 더욱 십자가 복음을 선명하게 계시해 주셔서 모든 인생의 참 기쁜 소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부로 믿는 영혼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남수단의 교회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주셔서 이들을 통해 십자가의 화평이 선포되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우크라이나 교회, 러시아 침공 이후 교회 박해 최소 76건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에서 최소 76건의 종교적 박해 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의하면, 우크라이나 의회 인권국장 드미트로 루비네츠는 1월 30일(이하 현지시각) 워싱턴 D.C.에서 열린 ‘국제종교자유정상회의’에서 “러시아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의 기독교인들이 큰 고통을 겪었다”면서 관련 내용을 전했다.

루비네츠는 “러시아 침공 이후 76건의 박해 사례가 알려졌다”며 “러시아 군인과 관리들이 2022년 2월 이후 우크라이나에서 최소 29명의 성직자나 종교 지도자를 살해하거나 체포했다. 이 수치는 확인된 사례일 뿐이며, 실제로는 훨씬 더 많다”고 했다.

그는 “점령자들은 자의적 구금, 강간, 고문, 살해와 더불어, 총격을 가하는 흉내를 내고 가족을 처형하겠다고 위협한다. 피해자들은 물이나 음식, 심지어 화장실도 이용하지 못하는 비인도적인 환경에 구금돼 있다”고 했다. 또 “러시아 군인들이 도시를 점령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 중 하나가 교회 건물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했다.

러시아 군인들이 예배 중 난입해 교회를 폐쇄하기 전까지 우크라이나에서 사역했던 미하일로 브리친 목사는 “러시아가 점령한 도시의 모든 교회가 폐쇄됐다”고 말했다.

미국 유라시아 선교단체 ‘종교자유이니셔티브’(Religious Freedom Initiative of Mission Eurasia)의 책임자인 브리친 목사는 “나와 같은 대부분의 목사들은 협박, 굴욕, 구금, 구타, 추방을 당했다”며 “일부 신자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러시아 감옥에 갇혀 있다. 그들 중 몇 명은 살해당했다”고 했다.

이 단체의 11월 보고서는 “러시아가 종교적 목표물을 공격하는 이념적 기반 중에는 현재 종교의 자유와 민주적 가치를 자랑하는 우크라이나 문화를 파괴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했다.

브리친 목사는 “정상회담 참석자들에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 점령이 계속되는 한 새로운 종교적 박해 사례가 나타날 것”이라며 “러시아가 있는 곳에는 자유가 전혀 없다. 나는 우크라이나 정부의 통제 속에 점령 지역이 해방되고 반환되어만 점령 지역에 종교의 자유가 돌아올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출처: 크리스천투데이 종합).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니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시편 56:1,9-10)

하나님, 러시아 침공으로 박해를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교회에게 은혜를 베푸사 두려움에 침몰당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힘 있게 붙들여 위기를 이기게 하옵소서. 종교의 자유와 민주적 가치를 파괴하며 무엇보다 하나님 두려워함 없이 교회를 향한 공격을 일삼는 러시아 군인과 관리들을 꾸짖으사 주를 경외함을 회복하여 주소서. 우크라이나의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의지하여 믿음의 걸음을 담대히 걸어 나갈 때 이 땅과 열방의 영혼들이 그들과 함께하시는 주를 바라보며 찬송하게 하옵소서.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2]

▲ 튀르키예, 강진 1년...아동 3명 중 1명 집으로 못 돌아가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은 5일 튀르키예-시리아 강진 발생 1년을 맞아 “아동 3명 중 1명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다고 연합뉴스가 5일 전했다. 지난해 발생한 두 차례의 대규모 지진과 여진으로 5만 6,000여 명이 숨지고, 아동 720만 명이 피해를 봤다. 튀르키예에서는 아동 20만 5,000명 등 이재민 76만여 명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라샤 무레즈 세이브더칠드런 시리아 사무소장은 “아직 회복의 징후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 인도적 지원도 줄고 있다”며 “아동과 가족이 잃어버린 삶을 재건하고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놀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시편 12:5)

하나님, 튀르키예와 시리아 강진 발생이 1년이 지났지만, 아직 회복의 징후가 보이지 않아 삶을 잃어버린 피해 아동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어린 영혼들의 놀림과 탄식에 응답하사 인도적 지원이 끊이지 않고 공급되게 하시고, 아동들과 그 가족에게 십자가 복음을 선명하게 들려주셔서 반석 되신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소서. 그리하여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늘에 소망을 두고 진리의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며 구원의 깃발을 높이 드는 주의 군사로 일으켜 주소서.

▲ 베트남 기독교인, 집에서 기도회 열어 징역형 선고

베트남 중남부 지역 소수민족 중 하나인 몽타냐르(Montagnard, 고산족) 기독교인이 자신의 집에서 기도회를 진행했다는 이유로 ‘분리독립 및 선동’ 혐의로 4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3일 보도했다. 복음주의 그리스도교회 소속인 네이 블랑(48) 목사는 지난 2일 법적 대리인 없이 선고를 받았다. 인권 단체 ‘크리스천 솔리다리티 월드와이드(Christian Solidarity Worldwide)’는 블랑 목사가 이전에 유사한 이유로 투옥되고 벌금을 부과받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블랑 목사가 자신의 신앙을 실천하는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몽타냐르 공동체는 주로 기독교인이며 역사적으로 베트남 정부와 충돌해 왔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린도후서 4:7)

하나님, 몽타냐르 교회와 블랑 목사님 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주와 함께 받는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베트남 정부와 위정자들을 복음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반복되는 핍박이 그치고, 베트남 성도들이 부르신 자리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능력으로 몽타냐르 공동체가 더욱 사랑과 은혜로 연합하여 선교완성을 이루는 믿음의 주역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민주 콩고, 북 키부주에서 폭력 급증...250만 명이 피란민으로 전락



콩고민주공화국(DRC)의 유엔 인도주의 조정관 브루노 르마르퀴스(Bruno Lemarquis)는 최근 북 키부주에서 폭력 사태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르마르퀴스 조정관은 “인도주의 단체들은 최근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한 많은 민간인의 목숨을 앗아간 총돌, 특히 1월 25일 주거 지역에서 발생한 폭격으로 19명이 사망하고 20명 이상이 부상을 입은 음웨소(Mweso)에서 발생한 심각한 국제 인도법 위반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갈등 당사자들이 군사적 충돌 중에도 민간인을 보호하고 그들을 공격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하며 민간인들이 군사적 충돌로부터 안전하게 인도적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최근 내전 확대에 따른 인도주의적 결과는 지금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현재 약 8,000명의 국내 실향민이 음웨소 병원 근처로 대피했다. 이처럼 생명을 지탱하는 시설 근처에서 전투가 격화될 경우 이들의 생명도 위험에 처할 수 있다. 현재 음웨소 보건 구역에는 긴급히 도움이 필요한 25만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다.

르마르퀴스 조정관은 “인도주의 활동가와 민간인의 안전을 보장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지원해 인도주의적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 키부주에서 분쟁의 영향을 받는 민간인들이 현재와 같이 반복되는 폭력으로 여러 해 동안 고통을 겪고 있다. 북 키부주에서 25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피란민으로 전락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인도주의 단체들은 접근성 제약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지역에 필요한 원조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브루노 르마르퀴스는 “수십 년간의 고난을 견뎌내고 안전하게 살기를 열망하는 콩고민주공화국 동부에서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정치 과정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시라 평안하게 하셨도다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시편 55:16,18,22)

하나님, 폭력 사태가 급증하고 내전이 확대되며 고통받고 있는 이 땅에 긍휼을 베푸시고, 주민들을 죽음과 고통으로 몰아가는 사탄의 악한 간계를 파해 주소서. 신음하는 민주 콩고의 영혼들이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이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주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옵소서. 국제사회의 마음을 움직여 피란민이 된 자들을 돌보게 해주시고, 모든 전쟁 가운데에서 권능의 손길로 이 땅을 보호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함께 보게 하소서.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3]

▲ 중국 공안, 가정교회 모임 급습해 200명 체포

중국 공안 당국이 지난달 27일 하이룽장성 무단장시 샤오탄촌의 한 가정교회 모임에 들이닥쳐 기독교 신자 약 200명을 체포했다고 가톨릭 전문 매체 UCA뉴스를 인용해 연합뉴스가 6일 전했다. 이들은 국가기관이 승인한 교리를 따르기를 거부하는 교회에 가입한 혐의로 체포됐으며, '솔라 피데(Sola Fide, 오직 믿음)' 네트워크의 일부인 가정교회 신자들이었다. 공안 150여 명이 급습해 체포된 기독교인들은 대형 버스 3대와 승용차에 태워져 현장에서 쫓겨났지만, 이들의 행방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인권 단체들은 시진핑 주석이 중국 국가주석이 된 2013년 이후 당국에 등록되지 않은 종교 단체들이 더 높은 수준의 박해를 받아왔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2018년 새로운 종교법으로 종교에 대한 탄압과 단속이 더 강화됐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이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에스겔 45:9)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주를 따르는 성도들에게 불의한 종교법을 명목으로 포악과 박해를 더해가는 중국 당국을 진리로 다스려 주옵소서. 체포된 채 쫓겨나 행방을 알 수 없는 성도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시고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중국교회를 굳건히 지켜주십시오. 교회에 대한 탄압을 멈추지 않는 중국 정부와 위정자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사 악행을 그치고 주의 공의로 국민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옵소서.

▲ 미국 캘리포니아주, 강한 폭풍우 이틀째 최소 3명 사망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강한 폭풍우로 피해가 이틀째 이어져 최소 3명이 사망하고 대규모 정전과 산사태로 인한 주택 파손이 발생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캘리포니아 북부 유바시티 경찰에 따르면, 4일 오후 한 주택가에서 남성 1명(82)이 시속 80km의 강풍이 불어 쓰러진 나무에 깔려 숨졌다. 현재 허리케인급 폭풍에 나무와 전선주들이 쓰러지면서 캘리포니아주 52만 4,000여 가구의 전기가 끊긴 상태다. LA 등에서는 전날 하루 동안 비가 104mm 내려 20년 만에 최대 강수량을 기록, 할리우드 힐스와 산타모니카산 일대 산사태가 발생해 주택 여러 채가 파손되고 주민들이 급히 대피했다. LA분지 일부 지역에서 강수량 4등급 중 가장 높은 4단계 경보가 발령됐고, 앞으로 48시간 동안 최대 356mm의 강수량이 예상된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시편 32:6-7)

하나님, 미국에 강한 폭풍우로 인해 대규모 피해를 보고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주를 주의 권능의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바람과 비를 다스려 주셔서 더 이상의 피해를 막아주시고, 침수된 주택과 시설 복구를 감당할 정부와 주민들에게 지혜와 힘을 주사 이 일에 교회가 함께 감당하게 하소서. 성도들을 깨우사 지금이 주를 만날 기회임을 깨달아 구원의 근거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노래가 멈추지 않게 하셔서, 이를 통해 듣는 자는 살아나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